

“부동산 세금폭탄, 아직 멀었다”



■김병준 靑 정책실장 균형발전위 심포지엄서
시작도 안한 8·31 대책 ‘악발 다됐다’ 어이없어
세금은 지자체 뭣... 지방이 정책 수호천사 될 것

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가 더
자인한게 2%이므로 2009년 가면
25억원짜리 집에 사는 분은 중부세
만 연간 5천만원을 내야 할 것”이
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참여정부가 끝나면
부동산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일
각의 전망에 대해 “(향후 정부가)
뭇바꾸도록 해놔야”며 “부동산 세
금으로 거둔 돈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갖도록 해놔야
로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부동
산 정책의 수호천사가 될 것”이라
고 내다봤다.
그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유
효성에 대해 “(지난해 발표된) 8.31

부동산 대책도 시행이 되지 않은 상
태로, 중부세의 경우 2009년, 2010
년이 돼야 제대로 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며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악
발이 다됐다’는 주장은 어이가 없
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어떤 대선 후보도 행정
중심복합도시를 그만두자는 얘기를
못할 것이고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공공기관이
전 문제도 ‘그만하자’는 얘기를 못
할 것이고, 오히려 ‘더 강화하자’는
얘기는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중앙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할 것”이라며 “이 정부 안에 균
형발전이 완벽히 이뤄질 수는 없겠
지만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물길을 하나 만들고 쉽게 무너지거
나 앞으로 변질되지 않은 정책을 내
놓고 그것을 밀고 갈 것”이라고 강
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LG필립스 LCD
과주공장 준공과 관련해 일각에서
‘균형발전 정책이 뒷걸음치고 있
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을 소
개하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밥을
한그릇도 안먹을 수 있느냐”며 “최
소한의 영양은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에 (공장설립을) 허
용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로 가겠다
는 기업을 어떻게 하겠느냐”며 “그
런 기업들은 기업대로 관심을 가지
면서 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변함
없이 몰고가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방향으로 정립하는데 노력하고 있
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2일
“오늘 신문에 종합부동산세가 8배
가 올랐다고 ‘세금폭탄’이라고 하
는데, (언론이 말한 세금폭탄이라
면)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롯데호텔에
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출범
3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 특강



“美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하라” 이라크를 격정하는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이름의 시위대들이 1일 뉴욕 유엔 앞에서 쿠바에 있는 관타나모 미군 수용소 폐쇄를 주장하며 관타나모 기지의 고문 장면을 묘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미·일 군사동맹 대폭 강화

양국, 미 해병대 병력 감 이전 등 군사 일체화 합의
오키나와 부담 줄이고 기지 공동사용·정보도 공유

미국과 일본이 1일 합의한 주일미
군 재편 최종보고서는 오키나와의
기지부담 경감과 양국의 군사 일체화
를 명문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오키나와와는 주일미군 기지의
75%가 몰려 있다. 현지 주민의 반발
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일 양국이 후텐마 비행장을 바닷
가에 있는 슈와브 기지로 옮기고 해
병대 병력 8천명과 가족 등 1만7천명
을 감으로 이전키로 한 것은 오키나
와의 기지 부담 경감을 겨냥한 것이
다. 나하 군항과 마키항 보급기지, 캠프
구와에 등 6개 군사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키로 한 것도 같은 차원이
다. 후텐마 비행장의 공중급유기 부
대도 본토의 이와누나기지로 옮기
기로 했다.
미일 양국의 군사적 융합이 구체화
된 것도 이번 재편안의 특징이다. 주

일미군 재편은 냉전기와 냉전 종식후
과도기를 함께 이룬으로 3번째다. 개
편 때마다 양국의 군사 일체화가 공고
해지고 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자막기지는 미국 본토에 있던 육
군 제1군단사령부가 통합거점사령부
(UEX)로 개편돼 설치된다. 이 사령
부는 한반도 유사시 투입될 실전부
대를 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육상
부대가 테러대처 명목으로 신설할 중
앙측응집단사령부도 같은 기지에 설
치된다. 이렇게 되면 유사시 미국 육
군과 일본 육상자위대의 사실상 지휘
일원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평
소 훈련도 공동으로 실시하게 된다.
공군도 마찬가지다. 항공중대사령
부가 제5공군사령부가 있는 요코
다기지로 들어간다. 아오모리에 있는
항공자위대 기지에는 미군의 미사일
방어(MD)용 최신 X밴드 레이더가



배치된다. 수집된 정보는 양국이 공
유기로 했다.
양국은 발표문에서 미·일동맹의 협
력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고 선언했다. 지금까지의 협력이 아
시아·태평양지역을 염두에 둔 동맹
이었다면 앞으로의 협력은 “글로벌
과제”까지로 확대된다는 뜻이다. 이
라크 파병에서 보듯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지구규모로 확대될 가
능성이 크다. /최진만기자 man21@

“부동산 열기로 가계빚 부담 심화”

韓銀 보고서...금융자산 8%↑ 금융부채는 11.2%↑
금융부채 비율 50.4%...미·영·일 등 선진국 2배 수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경기가 회
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가계의 빚부
담은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가계소득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부동산투자 열풍이 불면
서 주택관련 대출이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향후 거품 붕괴시 심각
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은 2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지난해 가계소득에 비해

빚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채무부담
능력이 약화됐으며, 저소득층의 신용
상태도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고 평가
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가계의 금융자산
이 8.0% 증가한데 비해 금융부채는
11.2%나 증가했으며, 이로써 지난해
말 현재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
율이 50.4%로 처음 5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

국의 20~30%에 비해 거의 배 수준
으로 가계의 빚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지난해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3.6%에 그쳐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개인가처분소
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4배로 전
년 1.3배보다 높아지며 역시 사상최
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지난 2003년 카
드대란 이후 신용카드 채무는 금융기
관의 위험관리 강화 등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지난해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
응한 기대감으로 주택관련 채무가 두
릿수의 증가세를 보인대 따른 것이라
고 설명했다. /이종대기자 jilee@

한국 도시화속도 81%...세계 최고

25년새 23.9%P 상승

한국의 도시화 속도가 세
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
났다.
2일 통계청과 유엔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도시화율은
작년에 80.8%로 25년전인
지난 80년의 56.9%에 비해
23.9%포인트가 올라갔다.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같
은 기간 한국보다 올라간 폭
이 큰 나라는 오만과 필리핀
2개국 뿐인 것으로 나타났
다.
오만은 1980년 31.5%에
서 2005년 78.6%로 47.1%
포인트가 상승했고 필리핀은
37.5%에서 62.6%로 25.1%
포인트가 올라갔다.
중국도 작년에 40.5%로
25년 전의 19.6%에 비해 20.
9%포인트 올라갔고 일본은
59.6%에서 65.7%로 6.1%
포인트가 상승했다. /최진만기자 man21@

삼성, 3년연속 ‘중국에서 존경받는 기업’

삼성이 3년 연속 ‘중국에서 존경
받는 기업’으로 선정됐다.
삼성 중국본사는 1일 경제관찰
보와 베이징대학이 공동 발표한
‘2005년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25대 기업’에 중국 기업 16개사, 외

자기업 8개사와 함께 선정됐다.
이로써 삼성 중국본사는 20대
기업을 뽑은 2003년과 2004년에
이어 3년 연속 중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이 됐다.
존경받는 기업으로 3년 연속 선

정된 외국계 업체는 삼성, GM,
IBM, 노키아, HP 등 5개 기업이다.
‘중국에서 존경받는 기업’은 매
출실적, 납세액 등을 기초로 추출
한 300개 후보 기업 중에서 증권기
업 CEO와 경영대학원 재학생 상
대 설문과 경제학자 및 언론인 평
가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연합뉴스

北 ‘위태로운 국가’ 세계 14위

북한이 정치, 경제 등 여러 지표
에서 볼 때 세계에서 14번째로 ‘위
태로운 국가’라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의 국제문제 전문지인 ‘포
린 플러시’와 평화운동단체인 ‘평

화기금’은 ▲정부의 통제력 ▲정
권의 정당성 ▲국내 치안 능력 ▲
국민 기초생활 서비스 ▲공권력
장악력 등을 기준으로 점수제로
국가의 순위를 매겨 2일 발표했다.

美 국제문제 전문지 평가
순단 1위...이라크 4위 랭크

그 결과 격심한 내전을 겪고 있
는 수단 1위로 꼽혔고 이어 콩코
민주공화국(2위), 코트디부아르(3
위), 이라크(4위), 짐바브웨(5위)
의 순위를 보였다. /연합뉴스

지붕·옥상슬라브 우레탄폼 방수전문!
지붕 방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 최첨단 산소제 폼...
(주)태양주택개발 | TEL: 0621 262-8606 262-8458

건설 면허의 모든 것 상임/임도/임수
青碩 C&S
TEL: 0512-0347-0 FAX: 0512-1097

어머님날 효도선물은...
전립선 J2V
호남지사 ☎1588-3871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 수석 합격자 배출!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5월 1일
5부 행정고시학원